

유통업계에 부는 북유럽 감성 여유있는 라이프 스타일 '인기'

주52시간 근무 영향 휴식 니즈 커져
새로운 문화 노출로 수용 폭 넓어져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시끌벅적한 파티보다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하게 누리는 휴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새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토종 화되며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취계(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뜻하는 덴마크어)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니즈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유통업계가 이번 연말 북유럽 감성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힐링을 전한다.

연말 시즌을 일찍부터 기념하는 식음료 업계에서 북유럽 감성을 녹인 특별한 제품과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연말을 맞이해 '북유럽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케이크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다크 초코 시트에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가나슈를 더한 '노르웨이의 숲'은 북유럽의 겨울을 연상시키며, 마스카포네 생크림과 오렌지 주레·라즈베리 무스를 조합한 '레드베리 포레스트'는 크리스마스 대표 컬러인 레드로 시즌 느낌을 살렸다.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덴마크의 유명한 조명, 가구 디자이너 '루이스 캄벨'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북유럽 자연의 레이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노르딕(Nordic) 리미티드 에디션' 커피를 출시한다.

패션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를 대변하는 심벌이 되면서, 패션 업계에도 북유럽 감성이 스며들었다. 유니클로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



네스프레소

디자인하우스 '마리메코(Marimekko)'와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핀란드의 겨울 정취를 테마로 한 2019 F/W '유니클로 x 마리메코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생활용품 업계도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며 특유의 심플함과 여유로운 감성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락앤락은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업체 데이라이트와 협업을 통해 단순하고 실용적인 북유럽 디자인으로 '라곰(Lagom)' 정신을 담아 4가지 컬러의 '메트로 텀블러'를 출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개인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의 마련으로 가족, 지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일상을 중시하는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특히,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자주 노출되면서 수용의 폭이 넓어진 것도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코리아가 4일 오전 교육기부 국제 NGO JA와 함께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 상사가 Y 벨리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50 여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450명을 초청해 청소년 진로 교육과 취업 연계를 안내하는 잡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스타벅스, 특성화고 구직 돕는 잡 페어 열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4일 국제 NGO JA와 함께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의 특성화고 대상 잡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 선호도와 적성을 알아보는 직무 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준비를 위한 개인별 이미지 컨설팅, 바리스타 직무 상담 등 다양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을 잡 페어를 통해 진행한다. 아울러

발표 기술, 모의 면접, 관계 형성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등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진행하는 커피 세미나 등의 실습 과정도 마련했다. 또한 스타벅스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서는 재능기부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도 함께 참여해 스타벅스 파트너 학사 학위 프로그램 사례 등의 후속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한미약품, 美 바이오사와 FLX475 공동연구

암세포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개발

상용화시 韓·中서 독점 권리
랩트, 유망 바이오기업 선정

한미약품이 미국 유망바이오기업이 개발중인 세계 최초CCR4경구용면역항암제를 기술 도입해 공동개발한다.

한미약품은 미국 랩트 테라퓨틱스(이하 랩트)와 임상 개발 단계 면역항암제(FLX475)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랩트에 초기 계약금 400만 달러와 향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54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상용화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랩트와 협력해 FLX475를 개발하고, 향후 상용화시 한국과 중국(대만·홍콩포함)에서의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랩트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 설립된 면역항암제 전문 바이오텍으로, 현재 다수의 경구용 면역항암제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랩트는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미디어인 피어스바이오텍이매년 전세계 유망 바이오기업 15곳을 선별해 발표하는 'Fierce15'에 2018년 선정됐다.

한미약품이 도입한 FLX475는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력을 활성화하는 혁신적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랩트는 현재 고형암 대상 글로벌 임상 1/2상 단일요법 및 랩트톨리주맙(제품명: 키트루다) 병용 요법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임상 2상의 일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국과 중국에서 위암 환자 대상 FLX475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FLX475 임상 개발을 진행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는 "FLX475는 위암, 비소세포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두경부암 등을 타깃으로 한다"며 "한국은 특히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치료제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웡 랩트 최고경영자(CEO)는 "한미약품과의 계약을 통해 아시아 시장 및 FLX475에 적합한 암 환자가 많은 지역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R&D 능력과 임상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실행력, 효율성을 갖춘 한미약품은 FLX475 공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서울병원 간이식팀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 300예 달성

모든 간이식 수술 복강경 시행
입원기간 줄고 환자 만족도 높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최근 복강경 간 기증자 절제술 300예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간이식팀은 지난 해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 200예와 간이식 2000예를 달성한 이후 거의 모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300예를 넘어섰다.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은 매우 어려운 수술로 알려졌다. 전세계적으로 기증자 수술이 보통 개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대부분의 기증자 수술을 복강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300번째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을 맡았던 최규성 교수는 "복강경 수술을 하면 상처도 작으니까 회복에 비해 통증없이 기증자가 빨리 회복하여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조재원 교수는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간암 및 말기 간부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뇌사 장기기증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이식외과 조재원, 김종만, 최규성 교수)이 최근 복강경 간 기증자 절제술 300예를 달성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들은 오히려 줄고 있어 생체 간이식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과거 기증자들이 큰 흉터를 갖고 살았지만 복강경은 수술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증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식팀은 최근 영국 외과저널에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아짐에도 기증자의 입원 기간도 줄고 기증자 수혜자 모두 합병증이 동등했다'는 결과

를 발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1996년 5월 '뇌사자 기증 첫 간이식 수술'을 실시한 이후 2001년 국내 최초 '무수혈 간이식', 2002년 '국내 최연소 생체 간이식 수술'(생후 3개월), 2017년 국내 최초 '도미노 생체 부분간 이식 수술'을 성공하며 국내 간이식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세경 기자

KGC인삼공사 동인비 현대적으로 해석... '헤리티지 에디션' 출시

'차이킴' 실크 100% 스카프

KGC인삼공사가 프리미엄 홍삼화장품 '동인비'와 한복디자이너 차이킴의 디자인이 만난 '동인비X차이킴 헤리티지 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인비X차이킴 헤리티지 에디션'은 프리

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동인비 진에센스'와 동인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한 '차이킴'의 실크 100% 스카프로 구성됐다.

'동인비 진 에센스'는 고농축 홍삼 성분의 집중 탄력 케어로 느슨해진 피부 탄력선을 끌어올려 어떤 각도에서도 탄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차이킴'은 자유롭고 노마드한 감성을 기존 컨셉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로 동인비의 순수한 에너지와 생기 열정을 차이킴 만의 선과 면, 컬러를 곁

이 사용해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관계자는 " '동인비X차이킴 헤리티지 에디션'은 시그니처 컬러와 로고를 제품 패키지와 스카프에 적용하여 고급스럽게 연출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동인비X차이킴 헤리티지 에디션'은 전국 주요 백화점 및 면세점 동인비 매장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